

第97回(定期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9年12月 6日(月)10時00分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區政質問의 件

附議된案件

1. 區政質問의 件 1面

(10時00分 開議)

○議長 洪承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區政質問의 件

○議長 洪承台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2 제1항에 의거 종로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회의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12월 6일은 金福同議員 外 6인의 議員이 질문하고 12월 7일은 李憲九議員 外 10인의 의원이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玄壽漢 議員께서 금일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내일 구정질문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은 총 101건이 접수되었으며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議員님께서 시간을 경과하지 않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일괄 질문과 오후에는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8일 수요일에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전에는 일괄 질의와 오후에는 일괄 답변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접수된 순서에 따라 金福同議員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福同議員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福同議員 존경하옵는 洪承台 議長님! 그리고 鄭興鎭 區廳長님과 盧張鐸 副區廳長님! 1,300여 종로구청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여는 전환점에서 있습니다. 20세기 마지막 정기회의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종로5,6가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19만 6천여 종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구 행정구역 중 종로1~4가동 인접지역과 이화동 경계를 볼 때 종로3,4가동은 종로4가를 기점으로 원남동 사거리까지를 보면 연건동과 인의동 일부가 행정동 종로5,6가동 인접지역으로 되어 있어 이곳 주민들은 온라인 민원처리제 덕택에 종로1~4가동 관할이면서도 종로5,6가동사무소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울곡로를 기점으로 하여 굴다리쪽으로 인접동 표지가 되어 있는데 법정동 충신동지역과는 아주 좁은 골목길 하나 사이로 이화동과 충신동 경계가 되어 있어 주민편의를 위한다면 종로1~4가에서 원남동 로터리까지를 기점으로 하여 종로5,6가동으로 합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충신동 고지대 즉 굴다리를 기점으로 하여 충신동 좁은 골목은 이화동과 충신동을 구분하기가 아주 힘들고 까다로워 이화동으로 되어 있는 주민들은 충신동으로 통합하여야 공무수행 면에서나 주민의 편의 측면에서나 편리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와 같이 소규모 세대를 인접 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게 된다면 행정 처리 면에서나 주민 편의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드립니다. 종로거리를 가로 휴지통 없는 시범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96년부터 휴지통을 모두 없애고 휴지통 없는거리 캠페인을 실시하고 여러 면으로 주민참여 홍보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메스컴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인도의 약 55%를 노점상과 도로시설물이 차지하고 있어 보행시민이 꼭에 하듯이 걸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종로5,6가동 관할지역만도 260여명의 노점상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어 주변 점포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이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주변 가로환경이 매우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노점상 단

속은 아예 포기하고 차로를 좁히고 보도를 확장하여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교통체증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될 것이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거리를 점거하고 있는 노점상 위주로 일정 구간을 정하여 도로 점용을 허가해주고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종로5,6가 지역은 종묘상들에게 종로4가 세운상가 지역은 전자제품 노점상들에게, 종로2가 지역은 인사동과 연계하여 전통음식판매상들에게 일정 면적과 구역, 위치를 할당하여 허가 후 규제를 하고 도로시설물은 지하로 매설하면 보행인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의 명소로 발전하여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점용료 징수로 인한 구수입도 증가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을 드립니다. 화재건물의 잔재처리와 건물수리방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종로5,6가 지역의 건물들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많아 누전 등으로 연간 20여건 이상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잔재물은 건물주의 책임으로 매립지의 승인을 받아 건물주가 직접 처리하고 건물은 대수선 신고를 한 후 수리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발생 대부분의 건물 소유자는 임대를 주고 외부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물주에게 연락할 길이 없어 세입자 또는 주변 건물주와 협의가 되지 않는 이유로 장기간 방치되어 미관상도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안으로 화재 잔재물은 건물주에게만 미룰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내에 건축주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접 치워주고 그 비용을 사후 소유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 장기간 방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한다면 미관상 깨끗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물수리시 대수선 신고를 하여 수리할 경우 설계비용이 소요되고 대부분의 건물이 무허가건물인 관계로 건물면적 감소로 인한 민

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화재 또는 위험 건물로 판정 받아 수리가 필요한 건물은 기존 건물면적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수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시행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충신시장 주변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인한 소음과 교통소통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충신시장 주변에는 크고 작은 화물운송업체가 있어 이들의 물품상·하차로 도로상 무단 상품 적치와 용달차, 리어카, 이륜차 등 물품운송기구의 방치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시간 대를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물품 상·하차 시에는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교통소통이 안 되어 불편한 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정기회 시에도 질문한바 있습니다만 그 후에도 크게 개선된 것이 없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들 업체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다고 하였으나 조금도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이들 화물 운송업체에 대한 불법, 탈법 사례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아름다운 종로, 깨끗한 종로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율곡로와 성곽 사이의 충신동은 여타지역에 비하여 심하게 낙후되어 이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도시미관이나 주민편의 상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성업지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건축법에서 구 조례로 위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접구인 중구에서는 이미 구 조례로 시행하고 있는데도 유독 우리 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동사무소 건축담당을 건축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하다보니 건축신고 처리 시 건축법 적용에 일관성이 없고 감사 시 문책이 두려워 건축신고를 기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 시 그 지역 청소 용역업체에서 제작한 봉투로 제한하여 다른 회사 규격봉투에 담겨진 쓰레기는 가져가지 않으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대한민국 어느 가정에서나 꼭 필요한 물건인 만큼 정부에서 정부 규격봉투로 지정하여 주시길 바라며 봉투값에 청소비와 제작비까지 포함하여도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게 주민의 원성입니다. 이로 인하여 일반봉투에 싼 쓰레기를 야밤에 도둑질하듯이 몰래 내다버리는 비양심적인 행위가 자주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업체의 선정시 장기 계속 수의계약을 하다보니 경쟁력이 떨어져 쓰레기 수거에 소홀하고 생활주변이 쓰레기로 넘쳐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정기간 공개입찰로 쓰레기 수거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종로5,6가동 관내 인도 보도블록이 깨지고 요철이 많아 이를 방지하여 비가 오면 보행인들 옷을 버리고 넘어지고 다치는 경우가 허다하여 살기 좋은 종로, 아름다운 종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중화장실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종로를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이 직접 목격했던 점을 말씀드리면 인사동 전통문화거리에 외국인이 화장실을 찾는 것을 본 의원이 목격하고 너무나 딱한 사정을 목격했는데 깨끗한 화장실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력하나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종로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洪承台 金福同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安載弘議員!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載弘議員 존경하는 19만 종로주민 여러분! 저를 이 종로구의회 의정단상에 서게 해주신 평창

동, 구기동 주민 여러분! 언제나 종로구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洪承台 議長님! 吳錦南 副議長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5시 구청장이라는 별명으로 주민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받으시면서 오늘도 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鄭興鎭 區廳長님! 그리고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盧張鐸 副區廳長님! 각 局長님! 각 課長님! 그리고 1,400여 종로가족 여러분! 이제 약 20여일 후면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문턱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맘과 노력의 결과로 종로는 나날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도 이제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종로, 살맛 나는 종로 건설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첫째, 우리 구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현재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제반적인 문제점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의 문제, 일부 지역에 여객 자동차 부지에 해제사유가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는 문제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불가 지역의 고시에 따른 보상 대책의 문제, 우리 구 내 일부지역의 최고 고도지구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의 문제와 익선, 무악, 사직1,2구역 재개발 문제와 심각한 반대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청진 도심재개발 문제, 교남, 무악, 경복궁, 동대문구역 등 상세구역의 개발 문제, 또한 종로구 면적의 12.9%를 차지하고 있는 풍치지구의 문제 중 특히 풍치지구의 문제는 자치구 자료에 의하면 '41년 일제시대 때 총독부고시 제337호로 최초 고시되고 그후 '77년 12월 3일 건설부고시 235호로 결정된 이후 약 20여 년 간 현재까지 방치되다가 '98년도에 부분 해제되고 '99년도에 행촌동 일부 해제, '98년도 두 곳에서 건축규제 완화 지역으로 신영동 일대와 청운동 일부가 해제되어 건축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또한 풍치지구의 지정이 일부지역에서는 합당하나 일부지역에서는 비합리적인 채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피해가 장시간 계속되어 주민의 민원과 또한 종로구 전체가 도심의 재개발이나 상세구역의 지

정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여론이나 주민의 의견청취 과정에서의 소극적인 홍보로 인하여 지역 구역 고시 후에 다시 주민의 반대의견이 접수되는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어 도시계획 시행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지경입니다. 도시계획은 많은 주민들이 연관되고 그 자체가 피해와 혜택이 양극화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관련 이해당사자에게 행정청이 할 수 있는 온갖 홍보 네트워크를 통하여 홍보하고 이해를 구하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시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위반 건축물의 양성화 건의를 요구합니다. 주택과 자료에 의하면 '98년도에 적발된 무허가의 건수가 110건, '99년도 무허가 적발건수가 112건이 있었습니다. 이들 건수는 적발된 건수이니 적발되지 않은 건수를 고려한다면 위의 숫자보다 더 많은 무허가건축물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82년에 정부는 제한적으로나마 불법건축물을 구제할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불법사항의 경중을 고려해서 사회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한 개인소유의 소규모 위반건축물이나 무허가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감히 관용을 베풀어 양성화함으로써 힘없는 주민들을 범법자의 상태로 두지 말고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하게 하고 납세의 의무도 지게 하며 금융혜택도 볼 수 있도록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의 종로구 구기동 139번지 일대 개발계획에 대한 종로구의 대책을 묻습니다. 현재 구기동 139번지 일대 여러 필지의 시유지가 서울시의 개발계획에 따라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국립공원 북한산의 입구에 해당하며 주거환경 여건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각 과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이 곳은 구청장께서도 열심히 노력하셨으나 끝내 서울시의 개발계획이 집행 중인 곳입니다. 본 의원은 이곳이 서부지역의 주민을 위한 사회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로 사용되기를 희망하여 서울시에 본

의원의 견해를 전한바 있습니다. 서울시 개발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감의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MBC 문화방송은 종로구의 친절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베스트 서비스 행정기관으로 종로구를 전국 최초로 선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급 공무원들의 잇따른 비리와의 연류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주민들의 종로구 행정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공무원의 비리가 조직 자체의 모습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주민위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볼 때 행정에 대한 불신은 종로구의 모든 직원들은 주민의 자금심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름답고 깨끗하며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로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3만 6,149가구에 약 65.6%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99년 초에 도시가스기금 잔액은 17억 4,000만원입니다. 기금도 있고 주민의 공급욕구도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이 쉽지 않습니다. 공급회사 배관망 사정과 공급 시 굴터의 문제로 인한 공급가격의 고가문제, 공급 희망 가구의 적음 등이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동 소규모사업비의 집행예산은 4억 8,000만원에 이르고 '99년도에 이르러서는 많이 줄어들어 1억 5,4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집행에 있어서는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비회계적이고 예산 낭비적인 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번 의회의 정기회 동별 감사 때 이러한 사항들이 의회에 지적되었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은 언제나 합법적으로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몇몇 동사무소에 편중되어 집행

되는 일도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 소규모사업비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쓰레기 처리를 위한 규격봉투의 판매책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은 전년과 유사합니다. 청소원들의 비리도 여전하며 쓰레기 무단투기의 실적도 좀처럼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위탁 처리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의 방안을 전국에 확대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청소원들의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방안인 쓰레기 처리의 민간이양을 고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8년 12월 4일 오전 10시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주민의 권리사항이 담긴 행정서비스현장을 제정하실 용의에 대해 질문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11월 25일 발표하신 2000년 새해 예산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민원행정의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를 위해 세무, 위생, 교통 등 5개 분야에서 행정서비스현장을 제정 확대 시행하겠다고 하는 고마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시 구청장께 새로운 세계에 알맞는 새로운 지역 통합을 위한 CI (COMMUNITY IDENTITY)를 제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한국 하면 서울이고 서울 하면 종로라는 것이 이 지역 주민 모두의 자금심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는 새로운 세계 종로의 이미지로서는 이제 교체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로의 역사성과 경제성, 문화성과 미래를 상징하며 지역의 전통성 확보와 주민의 참여 확대,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화,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지역 통합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지난 6월 3일 전 도시계획과장이 이병화씨가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시행자로부터 약 3,7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고 지난 10월 3일에는 전 토목과장

최윤옥씨가 1,9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사실이 있습니다. 일련의 이런 일들은 소위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과 교육기능을 수행해야 할 감사담당관의 기능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종로구 감사규칙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감사를 이행하여 표창할 직원은 표창하고 비리 공무원은 징계하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원과 시간의 부족으로 애 태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종로를 더럽히며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감을 초래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다른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건들의 예방을 위하여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영동 산1-1번지는 수 필지를 불법적인 형질변경 허가 후 수개월 간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발가벗겨진 산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으며 공사가 중단된 지 오래인 이 지역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예방하지 못할 피해가 발생할 우려지역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대책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로 종로구 부암동 201-3번지 외 2개 필지는 시지정 유형문화재 석파정 입구의 지역입니다. '98년 4월 3일 토지행위 등의 변경허가로 최초로 신청면적 997.87평에서 1,066.06평으로 택지의 정지면적은 341.51평에서 733.03평으로 토공사의 불량은 전체 4,261톤에서 1만 9,845톤으로 증가되어 공사 허가되었습니다. 이러한 허가절차가 적법한 사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이 가진 정보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들이 많아 재산 찾기 등 주민들을 위해 응용되기도 하고 주민의 행정 참여를 유인하여 지방자치시대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보공개법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세기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에도 19만 종로주민 여러분의 가정과 洪承台議長님을 비롯한 종로구의회의 모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들에게 25시 구청장인 종로구 구청장인 鄭興鎮 區廳長을 비롯한 종로가족 모두의 가정에 화목과 평화, 건강과 은총, 자비와 행복이 넘치시길 기원드리며 새로운 세기를 주민을 위한 최선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고생하시는 구의회의 모든 직원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洪承台 安載弘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洪起瑞議員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起瑞議員 명륜3가동 출신 洪起瑞議員입니다. 창 밖으로는 은행잎이 떨어져 노랗게 물들은 종로거리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연인들이 옷깃을 세우면서 걷는 모습을 보니 이제 한해도 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머지 않아 2000년을 맞이하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洪承台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도 노심초사하시는 鄭興鎮區廳長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의회 의정활동 상황을 매섭게 지켜보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요청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조치에 따른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물겠습니다. 종로구 관내에 불법 건축현황을 보면 '90년부터 현재까지 1,610건이고 '94년부터 913건으로 분류되었고 이 중 철거 예정 건물이 715건으로 분류되었는데 지금까지 철거 건수는 몇건인지 답변해 주시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98년도, '99년도에 390건으로 주택과 자료가 나타났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처리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특히 건축주 성명 물건지 주소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36항의 관계규정에 의거 비공개 대상이라는 명분아래 공

개할 수 없다고 자료를 성명, 주소를 빼고 제출했는데 위법자를 은폐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집행부 행정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자료 요청도 이 규정에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과연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징수 과정에 부당하게 징수되는 사례는 없는지 의심이 갑니다. 본 의원이 접수한 민원 한 건만 사례를 들겠습니다. 명륜3가 1-997 고병균 옥상에 새시 약 3평 정도를 '78년도에 시설하여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데 '96년 2월 29일 건축과태료 38만 5,000원이 부과되어 민원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납부하여 영수증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12월 20일자로 느닷없이 이행강제금 38만 5,000원이 부과되었다고 본 의원을 찾아와 본 의원이 영수증을 가지고 주택과 담당 김 모 직원에게 현황설명을 하고 시정을 요청했기에 시정이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저촉법상 '92년 이전에 발생건수는 과태료 1회로 종결되기 때문에 이 건물은 '78년도에 발생되었기에 당연히 시정되었으리라고 믿었는데 '99년 5월 30일자로 고지서가 부과되어 민원인이 본 의원을 찾아와 주택과 담당 김모 직원을 찾아가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하고 처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하고 재차 촉구하였으나 시간이 없어서 나가보지 못했다는 답변을 듣고서 너무 어처구니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원이 접수된 지 6개월이 지나도 하물며 의원이 접수시킨 민원도 현장 확인도 없이 탁상공론으로 처리되고 있으니 과연 종로구 행정이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로 뛰는 행정이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재차 현장을 확인하고 전자에 부과된 38만 5,000원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7만 6,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게 되었으나 과연 민원인이 공직자를 신뢰하겠는가 역시 민원인은 7만 6,000원 고지서를 받고 '78년도에 증축된 것이고 주변 주민들이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된 부분도 승복할 수 없다고 금년 9월 3일 10시경 민원인 고병균 부인이 주택과로 찾아가 행정의 모순된 부분을 논리적으로 항의하니 주택과 전직원들이 바

라보고 있는 사무실에서 당신이 공무원을 하라면서 소리소리 질러대서 너무 억울하여 소리내어 울고 있자 옆에 공무원들이 진정을 시켰다면 공직자들이 이렇게 민원인에게 압박을 가해도 되는지 본 의원을 찾아와서 눈물로 호소하여 본 의원이 백배 사죄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 7월 MBC 출발코리아 새천년 친절합시다에서 민원봉사과 직원 문숙자 외 5명이 친절봉사왕으로 MBC에 방송되어 전국 최초로 종로구청이 베스트서비스 기관으로 선정되어 구 위상을 선양한 공직자가 있는데 같은 종로구청 내에서 민원인에게 호통을 쳐서 민원인이 얼마나 억울하면 눈물을 흘리고 본 의원을 찾아왔겠는가 이러한 공직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주시고 또 아울러 명륜3가 1-996 이정옥 앞대문 옆에 개인 사유지에 높이 1m도 안되며 1평 정도 화분대 및 부녀회에서 텃밭장사를 할시 텃밭통을 놓기 위해 조그만 창고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불법건축물이라고 보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면 조그만 시설물에 본다고 생각하며 건축법상 높이가 2.2m 이상인 경우에 건축물로 봐야 옳다고 보며 이 시설물은 적치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동네 사는 서민들이고 누구에게 부탁할 만한 사람도 없고 힘 없는 사람이라고 단속반 3,4명이 출동하여 마구잡이로 부셔서 70세가 넘는 노인의 가슴에 못을 박아 그 충격으로 며칠씩 자리에 누운 사례가 있는가 하면 본 의원이 모동 행정감사시 적발된 불법건축물을 보면 25.3m²를 거실로 사용하는 것도 동사무소에서는 구청 주택과에 보고를 했으나 아직까지도 방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종로구의 1,610건의 무허가건축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공직자가 주민을 위한 공직자가 되어야지 주민 위에 군림하는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이러한 공직자는 자기 반성을 하면서 친절한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성대입구에서 소나무거리까지 직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겠습니다. 회화동로터리에 서 원남동까지 출퇴근시간에는 많은 차량이 정체

되어 교통이 혼잡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륜동에서 나오는 차량은 성대입구에서 소나무거리로 직진을 하게 되면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다고 보며 소나무거리까지 이용차량을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시간에 차량 이용량이 50여 대밖에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로 개설해놓고 무단주차장으로 변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명륜동에서 직진만 하면 대학로 지하철역까지 바로 소통이 될 수 있어 차량 이용이 분산됨으로 주민들의 불편해소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앞으로 직진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고독성 농약살포를 지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10월 4일 일간지 신문들에 보도된 자료를 살펴보면 가로수에 고독성 농약을 마구 살포하여 주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산림청 권장 저독성 농약으로는 디프스화제, 주룬수화제, 크로로프로아론제를 살포하도록 되어 있으나 병해충이 죽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임의적으로 슈트라사이트포리마트메타유제, 메소실론콜 등을 마구 살포하여 가로수에 뿌려진 농약이 길에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주민의 건강을 해친다면 특히 우리 종로구는 유동인구가 200만에 가까운데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산림청에서 지정한 농약을 살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타구에서는 고독성 농약사용량이 전체 사용량의 46%에 해당된다고 조사되었는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과연 어떤 종류를 살포하였는지 그 품종과 사용량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주민 건강을 위해 독성 농약을 금지하고 산림청 지정 약품으로 대체할 방법이 있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와룡시장 개·건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륜3가 1번지 와룡시장을 보면 옛날 40년 전에 판잣집 또는 블록으로 건축된 80여 가구가 현재 낡을 대로 낡아서 비가 새고 붕괴위험, 화재의 발생원인을 안고 있어 신축을 하고자 해도 대지 평수가 5평에서 20평정도 되는

소 대지에 건축물도 전 대지에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하고자 해도 공지를 빼고 지어야 하기 때문에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마는 아름다운 종로가꾸기의 사업 일환으로 건축물이 있는 그대로 재건축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 남북적십자회담이 서울에서 열릴 때 파주로 해서 불광동까지 건축법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2층으로 개건축한 사례를 보니 아주 쾌적한 거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구도 이러한 유사한 지역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별법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아름다운 종로가꾸기 사업을 시행하실 방안이 있으신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청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로구청 관용차량 보험현황을 보면 총무과 38대, 동사무소 행정차량 19대, 청소행정과 69대, 교통지도과 4대, 보건소 8대, 구의회사무국 2대 등 140대를 보유하고 있고 보험가입 현황은 삼성화재해상 19대, 국제화재해상 95대, 신동아화재해상 22대, 동부화재해상 2대, 현대화재해상 2대 등 구분되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차량 보험가입이 종합보험 전담보 가입이 아니고 책임, 대인, 대물 등 일부분만 가입이 되어 있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상해, 자기 차량분야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현재 가입상태로 보면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나 탑승자의 인사사고 때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체 차량수리비 등 보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보며 동행정차량이나 구청버스 등은 일반인도 가끔 승차하는 사례가 있는데 만약 주민들이 승차시 인사사고가 발생되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보며 그러한 경우 구청에 미치는 여론 등을 감안하면 얼마나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지 상상을 해보셨는지요? 본 의원이 조사한 1개 분야만 상정을 해보면 동사무소 행정차량 19대분 현재 가입보험료가 279만 5,990원이고 종합보험 전담보 가입시는 328만 7,600원으로 그 차액은 491,610원이며 한대당 차액은 25,874원으로

얼마 차액이 없습니다. 다만 종로구청 예산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라는 다른 분야에 절감해서 직원과 주민 안전에 우선 편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서울시 각 구청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전담보 보험가입은 동대문구청의 16개 구청이고 종로구청처럼 부분적으로 가입한 구청은 은평구청 외 6개 구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사자료를 봐도 이제는 안전을 위주로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로구는 '99년 새서울 안전관리분야 1위를 수상한 영광과 3억의 인센티브를 수령하여 특수사업비로 투자한 우수구가 불명예스럽게도 안이한 행정으로 안전사고대비에 소홀한 경향이 있어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험가입시도 회사가 안전한지 꼼꼼히 살펴 작금의 금융기관이나 보험사도 퇴출사고가 많이 적출되고 있는데 종로구청 보험가입시는 안전한 보험사로 선택하시기 바라며 2000년 보험가입시는 전차량을 종합보험 전담보 가입으로 전환하여 운전자나 탑승자 안전에 대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지세 총면적과 지적공부 총면적 차이 사유 및 세외수입 변상금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겠습니다. 종로구 재정 규모가 '98년 일반회계 세입이 1,174억 6,200만원이며 이중 자치구세는 417억 6,600만원으로 35.6%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396억 2,300만원으로 3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으로 조정교부금 14.7%, 보조금 12.6%, 지방채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세 중 종합토지세는 24억 4,700만원으로 58.6%를 차지하고 사업소세 18.4%, 재산세 17.1%, 면허세 4.6%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치구세 58.6%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유 과세인 종합토지세 부과와 관련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 면적이 787만 2,766㎡ 비과세 및 세액감면 토지세는 1,594만 1,453.6㎡ 총 면적은 238만 4,220㎡이고 '99년 8월 30일 현재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2,391만 3,919㎡입니다. 종합토지세를 부과 및 제외면적 현황과 지적공부 면적을 비교하면 지적공부 면적이 9만 9,696.4㎡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로 되어 있는 바 종합토지세 부과면적 및 제외 면적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면적의 차이가 나는 사유와 9만 9,669㎡의 면적은 과세토지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67.1%를 차지하는 취약한 재정여건을 극복하여 자치 재정의 자주성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변상금 징수에 대해서 물겠습니다. 변상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수익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을 공유하거나 수익한 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지방세 징수율은 89%, 세외수입 징수율은 82%이나 변상금은 부과 16억 6,900만원에 징수가 1억 8,500만원으로 징수율이 11.1%로 극히 저조합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담당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 처사라고 보며 미징수분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가며 만약 변상금 납부시한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해야 하는 취약점을 안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단 변상금은 약 88.9%가 세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징수율 제고할 방안이 있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洪承台 洪起瑞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丁炳煥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炳煥議員 존경하는 洪承台議長님! 그리고 吳錦南副議長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또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권한이 양에 대한 수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며 종로구청을 책임지고 계시는 鄭興鎮區廳長님과 盧張鐸副區廳長님과 19만 종로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혜와 슬기를 모아 헌신 봉사하시는 1,300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로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사 직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무악동 출신 丁炳煥議員입니다. 저를 구 의원으로 보내주신 무악동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19만 종로구민의 대변자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여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아름다운 종로로 발전시키는데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종로구 주관 전국 노래자랑, 열린 음악회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아름다운 종로, 미래로 지향하는 종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합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의 시책이나 사업이라도 대상에게 사업의 목적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 것과 같이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제출하고 TV나 방송에 출연해 구정방향을 설명하는 등 간접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개방화, 자율화, 국제화, 정보화시대에는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종로를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언론매체 또한 홍보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자율 개방화 추세에 있으므로 효과적인 주민홍보가 될 수 있도록 TV 인기프로에 종로구 주관, 전국노래자랑이나 열린음악회를 유치하여 홍보한다면 좋은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부 대역양곡 체납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제도는 공적부조제도의 근간으로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82년, '83년, '85년 3회에 걸쳐 대역양곡을 지급한 후 회수치 못한 양곡은 '99년 현재 73여 톤에 이르고 있는데 회수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회수치 못하여 국고를 낭비하고 있는데 이는 대역

양곡을 지급함과 동시에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을 연계하여 자활의 의지를 불어넣어 회수토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방치하여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사후대책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또한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결손처분 하여야 함에도 결손처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 직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 승진 누락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구청 직원은 그 동안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따라 자의든 타의든 명예 퇴직한 인원이 3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하위직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사정책이 가장 복잡한 인간의 문제라는 것을 잊고 안이하게 보아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아마추어적인 인사정책의 남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공직 내에서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심화시키고 강자의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작용하여 심각한 사기저하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직원의 사기양양책을 다방면에 걸쳐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구청이나 시청에 비해 유독 종로구청이 정작으로 직원 사기를 높이기 위한 하위직의 승진에 인색함이 많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들 중 한 직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앞으로 이들에 대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승진시킬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무악동 약수개발 폐공 후 잔재 처리 건에 대해서 물겠습니다. 무악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를 기대했던 무악동 46-1910번지에 많은 예산들을 들여 약수를 개발하기로 하였으나 수질이 나빠 수차에 걸쳐 약품처리를 하였어도 식수로 적합하지 않아 폐공 처리하였는데 몇 년 동안 잔재 처리 및 폐공 등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흉물스럽게 방치하여 자연 경관을 훼손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청진동 경로당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생활 수준에 맞춰 부족한 노인 여가시설을 늘리고 복지시설을

지역 별로 균형있게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진동, 송학동, 수송동, 공평동, 견지동, 종로1가동 6개 법정 동을 합하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30여 명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없어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와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진동 191번지 우리 구 소유인 새마을금고 2층에 현재 대건관광여행사가 유상 대부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시설을 원하고 있는데 區廳長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청진동 재개발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진동 도심재개발사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규모가 청진동 140번지 외 621 필지이며 면적은 77,931km²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의 1000년 앞을 내다보고 설계하는 방대한 계획이 타당하다고는 하나 본 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행정 목적의 실질적 구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추진을 지원하여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를 동시에 증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볼 때 지구 285명 중 75%인 195명이 자율적으로 수복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곳은 서울호텔 11층에서 내려다보면 주변 집들이 루핑 지붕으로 덮여있어 누더기 옷을 입은 것 같고 비가 오면 비가 새는 데도 보수를 못하는 실정에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런 곳이 서울의 한복판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며 20여 년간 주민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므로 한시적으로 보수 및 개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하나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종로구정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주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洪承台 丁炳煥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崔康洵議員!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康洵議員 崔康洵議員입니다. 창신3동 출신 崔康洵議員입니다. 50년만에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종로구 새 천년의 아름다운 미래를 지향하는 종로구의회의 발전과 의회의 위상정립에 전력투구하시는 洪承台 議長님과 吳錦南 副議長님! 그리고 19만 6천여 종로구민의 대변자로서 그늘진 곳, 어두운 곳을 몸소 발로 뛰며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先輩同僚 議員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발로 뛰는 현장 행정과 참여 자치의 민주행정을 펼침으로서 아름다운 종로, 미래를 지향하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鄭興鎭 鐘路區廳長님과 1,6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난해에 이어 창신1동 주민들을 대표하여 두 번째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에 관한 법률이 '99년 7월 30일부터 구체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면서 진정으로 주민에 의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창신1동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98년 구정질문 시에도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다름 아닌 왕산로를 도시환경정림과 사과, 능금, 살구 등 과일이 익어 가는 환경 친화적인 거리로 조성하여 시골 정취를 느끼도록 정비함으로써 낙후된 창신동 주변환경을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는 거리가 되도록 주민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왕산로 주변에 여름철 가로수가 우거져 꽃가루가 날려 햇빛을 가려 주민들 건강에 심각한 정도로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주변 건축물이 손상되고 상가 간판을 가리고 야간에는 보안등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므로 불량청소년과 치안이 들끓는 우범지대로 변하여 통행을 꺼리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 길을 정비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다면 우선 이곳을 지상2m 높이의 보도 등을 설치하여 운치있고

낭만이 있는 거리로 바꾸고 주변 보도를 유색 아스콘으로 포장을 한다면 아름다운 주변환경이 어우러져 걷고싶은 거리로 변화되어 주민 정서에도 좋은 효과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대의 발전과 주민생활의 향상으로 수준에 맞게 사용이 편리하고 안전도가 높은 청정 연료인 도시가스가 하루속히 전 지역에 보급이 이루어져 주민 편의증진은 물론 맑은 공기 보존으로 쾌적한 도시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에도 창신동 상업지역 내에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에 설치한 LPG 가스통으로 인하여 폭발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민이 모이는 다중 집합장소에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는 대형사고로 번져 위험천만한 일로 볼 보듯 뻔한 일인데도 안전한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대문시장 지역은 정치, 경제, 상업업무의 중심지인 종로 중에서도 서울의 명소로 주민의 생활편익에 기여하고 생활화, 경제활동의 공간이며 주변에 기술고등학교와 초등학교 2개가 있어 학생 통학로와 종로구민은 물론 서울시와 인근 수도권 주민, 국내의 관광객 등 20여만 명이 통행하는 곳입니다. 이 곳을 창신1동 주거지역과 연결하는 길은 동대문 지하철역 지하도와 그 다음 송인동 로터리뿐이므로 거리가 너무 멀어 보행인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신1동의 구민회관 후문 쪽, 다시 말씀드리면 동대문 쪽 그라스타워빌딩 측과 건너편 보람약국 간에 육교를 설치하기를 염원하고 있으므로 주민과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서서 동대문종합시장의 지역발전과 국가 경제발전의 활성화 측면에서 사업효과성, 환경영향분석, 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반드시 육교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區廳長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97년 12월말 우리구 노령인구는 1만 2,796명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와 문화의 발전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노인 인구는 앞으로 대폭 증가될 전망이며 우리도 이분들과 같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사회발전에 기여하신 노인이 된 어른들이 존경받아 마땅하며 건전한 여가생활로 이 분들을 편안히 모시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지난해 경로당을 신축해달라는 본 의원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데 이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창신동 주민의 소리며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받고자 하는 주변에 거주하는 500여 노인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매마침 창신1동 195번지 일대에 대지 50평의 신축부지를 확보하고 있는데도 현대화된 경로당을 신축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어린이는 이 나라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더욱 높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창신1동에는 어린이 놀이공원 하나 없어 어린이들을 위험한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어린이 교통사고 희생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들만이 즐기는 생활공간과 신체적으로 능력을 숙달시킬 수 있는 교육장이므로 어린이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하여 어린이 체형에 맞는 놀이시설, 휴게시설, 편의시설, 환경림 조성으로 쾌적한 경관이 어우러지도록 현대화된 놀이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창신1동 13통에 현대화된 놀이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지방화시대에는 그 지역 주민이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목표 지점을 향하여 알차게 그리고 차분히 전진해 나가야만 선진 민주국가로 세계에 우뚝 서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래를 지향하는 종로 구정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해주신 종로구의회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종로구청

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와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 뒤에 창신1동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 주셨습니다. 아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洪承台 崔康洵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宣相善議員!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相善議員 종로의 동쪽관문인 송인2동 출신 宣相善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洪承台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 議員님 여러분! 그리고 19만 종로구민의 삶의 질과 복지 증진을 위해 勞心焦思하시는 鄭興鎭 區廳長님! 盧張鐸 副區廳長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신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데도 오늘 방청석에 와주신 종로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홉수라고 합니다. '99년! 별로 좋지 않은 이 숫자가 3개나 들어있는 그런 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은 한 해고 또한 연일 TV만 켜면 웃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돌아오는 새 천년 21세기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그런 중차대한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영국에 날이란 시인은 겨울이 오면 봄은 그리 멀지 않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이면 대설입니다. 이제 20세기를 24일 후면 이제 세월의 뒤안길로 보내야만 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제 질문 몇 가지만 간략히 요약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97년도에 구정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동묘공원에서 송인초등학교까지 노점상이 있는데 지난 몇 년보다도 '99년 현재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참으로 복잡하고 보기가 흉한 그런 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말합니다. 송인초등학교에서는 우리 젊은 새싹들이 인성교육의 장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지나가는 동묘 앞 거리는 현우,

현신발 등 각종 고물들이 너절히 널려있어 우리 어린 새싹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줘야 하느냐?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보기가 흉한 곳이 바로 동묘길입니다. '97년도에도 본 의원이 이 곳에 대해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은 단 1건도 되지 않고 더 노점상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단속을 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로 인해서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상·하수공사, 도시가스공사, 통신공사, 한전케이블공사 등등 각종 공사로 인해서 도로를 굴착해놓고 원상복구를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굴착 후에 원상복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과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를 굴착해놓고 완전복구가 안되기 때문에 도로가 침하 돼서 지나가는 통행에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여기에 비가 고여서 지나가는 차량으로 인해서 흙탕물이 튀고 하는 이런 일이 비밀비재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서는 담당공무원들의 확실한 사후복구가 잘 이뤄지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송인동 179-45호, 181-112*509번지 간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여기는 공사안내표지판에 5월 9일부터 시작해서 '99년 12월 31일날 완공을 하는 길로 안내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52채의 가옥이 헐렸거나 일부 건물이 지난 6월 달에 헐린 그 상태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치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되는 그러한 흉흉한, 스산한 그런 동네를 연상케 하는데 지금까지 왜 공사가 지연됐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여기에는 높은 축대로 인해서 변경을 시켜야 할 곳, 또한 고도의 레벨이 맞지 않아서, 급경사로 인해서 많은 최위에서 최저까지의 고도차이를 맞추기 위해서 상당한 공사비가 많이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것을 사전에 답사를 해서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만들지 않아도 될텐데 협

의보상 해놓고 막상 집을 헐고 보니 공사비가 굉장히 힘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형을 변경시켜서 빨리 여러분이 약속했던 금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지역 의원인 본 의원에게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왜 지연이 되고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다는 말 한마디가 없는데 주무부서인 李宗哲 住宅課長은 무엇을 하고 계시며 거기에 협의하신 협의보상을 담당하신 윤규경 담당 그리고 도로개설을 담당하시는 금정용씨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청장이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일아파트 건입니다. 삼일고가도로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도심 속의 흉물입니다. 과연 수도 서울에 이러한 집이 있나 하고 반문할 정도로 흉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절한 각종 전선, 또한 파이프, 퇴색된 외벽 등 참으로 보기 흉합니다. 창신1동에서 승인2동 사이입니다만 7동에서 12동, 1,455평 이것은 건물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급 판정이면 헐려야 되겠지만 D급 판정이기 때문에 헐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기철이면 여기 저기에서 비가 세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불편함 속에서 항상 조마조마한 그런 나날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풍아파트가 예고를 하고 무너졌습니까? 와우아파트가 무너진다고 하고 무너졌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발생되면 종로구에 책임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서 이주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24일 후면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의회와 종로구청이 하나가 돼서 양대 수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우리는 하나가 돼서 종로발전을 기하는데 우리 다같이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洪承台 宣相善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마지막으로 朴鍾植議員!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鍾植議員 朴鍾植議員입니다. 아마 오늘 질문은 제가 마지막이 된 것 같습니다. 자기 생업은 뒷전으로 뺀채놓고 종로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洪承台議長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종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종로를 만들기 위해 구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모든 1,300여 공무원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우리 고명하시고 해박하신 동료 의원들께서 구석구석이 다양하게 심도있는 훌륭한 질문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질문 겸 요청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청에서 발주하여 각종 공사에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공업자들은 회사 이익을 우선으로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부실이나 하자공사가 발생하기 십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줄이고 또 지역실정에 맞게끔 또 효율적인 공사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지역실정에 잘 맞고 공사현장에 접하기 쉬운 인근 주민 중에 한사람과 그 지역출신 구의원을 명예감독관으로 해서 공사 관리감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오게 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채택한 것은 아름다운 종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조사하시는 鄭興鎭區廳長님의 애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나름대로 잘 운영되어 왔고 또 큰 성과도 많았습니다. 사실 어떤 공사가 잘못되었을 때 하자가 발생하고 부실이 발생되었을 때 구청과 구의원들이 원성도 듣고 민원도 받게 됩니다. 요즘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구의원이 지역에서 대표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민원은 거의 구의원들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명예감독관 제도가 잘 진행된다면 공사 후에 쏟아지는 원성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무시해버리고 아예 호지부지 빼버린 부서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공사 마무리 단계에 와서 물론 우리 명예감독관들이 결재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대표성을 가진 명예감독관들에게 위촉을 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한 만큼 공사 마무리 단계에 의견을 듣고 결재까지는 아닙니다. 라는 검열을 받은 후에 준공처리를 하고 잔공처리를 하고 입자를 철수시킨다고 하면 공사 후에 원성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서에서 처리해버리다 보니까 공사 후에 구의원들에게 민원이 막 쏟아집니다. 아마 어떤 공사는 하자보수비만 가지고 뒷처리가 어려울 정도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명예감독관 제도를 부활해서 더욱 강화해서 종전처럼 위촉해서 관리감독하도록 하되 위촉장만 줄 것이 아니라 공사에 관한 개요나 시방서를 함께 쥐 가지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공사 관리를 해서 공사 후에 어떠한 부실이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성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모든 공사가 효율적이고 정말 성실하게 잘 이루어질 것이며 신뢰받는 우리 종로구청이 되고 구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명예감독관 제도를 더욱 강력하게 강화시켜서 잘 활용토록 해주실 것을 촉구하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방의회가 시작된 지 처음 초대의회 때 각 지역에서 조그만 민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조그만 500만원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조그만 미원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한 동당 4,000만원씩 소규모 사업비를 배정해 가지고 동장 직권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아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터지고 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동 단위로 소규모 사업비를 배정을 못하고 구청에서 맡아서 일부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균형이 맞지 않고 불공정한 부분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민원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대처할 수 없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경제도 회복되어가고 했기 때문에 2000년에는 다시 각 동별로 소규모 사업비를 균등 배분

해서 동장들 직권으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아프고 가려운 곳을 빨리빨리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구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청장님께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며칠 안 있으면 2000년 새해가 됩니다. 저는 어느 곳에서나 저희 직원들에게도 그리고 제 동생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아쉬운 것은 주인의식이 부족합니다. 우리 종로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구 업무를 내 집안 업무처럼 생각하고 해주신다면 아마 어떤 공사에 하자발생도 없을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 발전하는 정말 아름다운 종로가 되도록 하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간단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洪承台 朴鍾植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주민과 지역신문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의 일팔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0分 會議中止)

(14時02分 繼續開議)

○議長 洪承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鄭興鎮區廳長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鄭興鎮 존경하옵는 洪承台議長님을 비롯한 議員님 여러분! 오전 내내 많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구청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5년차가 됩니다. 라는 날이 갈수록 의원님들이 세세하게 전부 잘 파악하고 계시고 또 저도 모르는 많은 것을 이렇게 충고도 해주시고 많이 가르쳐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족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준비한 여러 가지 자료와 제가 알고 있는 몇가지들을 이렇게 혼합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성의있는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金福同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번째로 원남동, 인의동, 충신동 일부와 이화동 일부를 서로 조정하여 행정구역상 종로5가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할 의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사한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종로구 관내는 종로1,2,3,4가동과 종로5,6가동, 혜화동, 명륜3가동 등 동 행정구역별로 불합리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내년 중반기에 구 전체 행정구역 조정을 전면 검토할 것입니다. 이때 의원님들의 많은 하교와 세세하신 많은 연구검토하신 것을 많이 도와주셔서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많은 도움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노점상에 일정구간을 허가하여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도로시설물을 지하로 매설할 그런 용의가 없는가 그래서 편리를 증진할 생각은 없는가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종로가 특히 단속과 그리고 불법 그 악순환이 항상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양하고 구 수입을 제고하는 兩手兼將의 그 묘책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도 외국의 경우는 상당수가 그런 허가 난 점포 앞에 일정한 그런 크기를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세수를 증대시키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보고들었습니다. 노점상에게 일정구간을 도로점용 허가하는 사항은 아시지만 현행 도로법 및 관련규정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일부 구간에 노점상에게만 허용한다고 해서 동업종의 노점상이나 타구의 노점상과의 형평성 때문에 특혜시비가 있을 것도 사료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연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로시설물 지하매설에 대하여는 본 문제점을 인식하고 '95년부터 아름다운 종로건설과 연계하여 종로거리로부터 한전 지상기기, 변압기, 개폐기를 지중화하도록 관계부서에 지중화를 요청한 바 있으나 방열, 방수, 배수 및 유지보

수 문제로 인해서 지하기기가 미개발 상태이고 시설비용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고려중에 있으나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 중에 또 쓰레기통 없는 거리 그리고 노점상 도로시설물 그런 것들이 보행 방해가 되고 또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메스컴 보도를 인용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제가 생각키로는 사람이 많은 곳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와야 돈벌이도 되기 때문에 그곳으로 몰려들고 또 대통령께서도 생계형 이러한 노점상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라 이러한 말씀이 있으시고 또 우리로서는 많은 세와 권리금을 주고 점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전혀 세금도 내지 않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린다고 보여지는 노점상을 우리가 단속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양면성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칙적으로 신규 발생을 억제하고 또 그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5시면 퇴근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거의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시장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종로의 특성을 생각해서 특별한 예산을 배정해주지 않으면 단속할 수 없다 이 어려움을 얘기를 두 차례나 했습니다. 아까까지 커다란 변화는 없습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문제 또 시 차원의 문제라고 이렇게 보여질 때 좀 더 많은 인원과 예산을 배정 받아서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도 올렸습니다. 아까 그 기기나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한전측에도 얘기하고 그러한 관련부서에 얘기했습니다. 아까는 그런 기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예산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종로거리가 그 수많은 그런 배전함도 도로상에 보도상에 있다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화재쓰레기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경우 구에서 우선 처리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징수하는 방안과 화재 및 위험건축물 대수선허가 부분도 기존 건축물 면적 범위내 포함해서 대수선허가할 용의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모든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배출자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화재쓰레기의 경우 건물주가 외부에 거주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쓰레기 처리를 지연하는 사례가 있으며 또한 세입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쓰레기가 장기간 보관되는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에서 직접 화재쓰레기를 처리하고 그 비용을 사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도록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과 타 시, 도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관련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쓰레기 청소하는 미화원들 애기도 있었습니까마는 화재가 났을 때 쓰레기 문제 우리가 먼저 그 예산을 넣어서 먼저 해결하는데 나중에 공금 회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미화원 애기도 지금 여기 문제와 다르게 말씀을 드렸습니까마는 이 관행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생각해봐야 한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중에도 질문이 계셨습니까마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곡을 줬는데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등등 이러한 유사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좋은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는데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으로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는 적법하게 건축하여 준공된 건물에 한하여 가능도록 하고 있어 무허가 대수선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해예방 및 생활안전 차원에서 무허가 등 위법건축물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국회 및 관계부서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고 메스컴에서 보셨겠지만 상당히 가

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충신시장 주변에 크고 작은 화물 운송업체가 있어 이들이 새벽시간대에 물품 상하차시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교통 소통이 안돼서 불편이 많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의 등하교 길에 많은 방해가 된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실정을 통감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여기가 잘 정비되도록 동장과 또 관련부서에 얘기해왔습니까마는 최근에도 교통지도과장을 시켜서 화물자동차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라고 하고 지금 일부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충신시장 입구에 거리질서확립안내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화물차량주에게 충신시장 주변 화물운송 질서확립 협조문을 발송하고 자발적으로 깨끗한 종로가꾸기 운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함과 동시에 그동안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계속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중점 지도 단속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울곡로나 성곽 사이의 충신동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용의 또는 아파트지구로 할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우선 해당주민의 동의가 첫째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구지정 요건 등에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동의를 받아 지구지정 신청을 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또는 아파트재개발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똑같은 상업지역이라 해도 중구청에서는 구로 위임해서 대형건축물이 건축 가능한데 우리 구에서는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구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찌 종로구와 중구가 다른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되었으나 '99년 7월 30일자로 자치구 건축조례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축기준은 우리 구와 중구가 동일한 그런 실정이고 우리 구 조례로 별도로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사무소 건축담당을 건축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임명하다 보니 건축신고 처리시 건축법 적용이 일관성이 없고 감사시 문책이 두려워 건축신고를 기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고 그 전문성 결여를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현재 전 동사무소에 배치된 건축직은 1개 동사무소밖에 없고 말씀하신 대로 행정직이 지금 배치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자연히 전문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고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아 많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이러한 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특별히 건축직이 아닌 행정직을 구청에 모두 소집을 해서 특별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다 최근에는 건축법이 동사무소에서 건축신고접수만 수행하고 나머지 모든 건축업무를 구청 건축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있어 조만간 규칙개정 후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쓰레기봉투를 국 차원에서 통일된 규격봉투로 지정하고 청소대행업체를 매년 공개경쟁입찰방식의 의거 선정할 의향이 없는지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건설부담금 등 청소관련 예산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청소대행업체는 구청의 예산 지원없이 봉투판매대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통일된 규격봉투 제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타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남은 규격봉투는 판매소에서 전부 현금으로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규격봉투 가격은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20ℓ의 경우 380원이고 사업장에서 많이 쓰는 100ℓ의 경우는 2,180원으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 중간경도의 수준이며 타구에서도 청소재정의 적자폭이 커져서 금년 말 15~20% 이상 인상 계획이 있어서 서울시 전역의 봉투가격이 평준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원과 장비가 필요한데 청소작업은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하는 사항으로 용역업체를 1년 단위로 공개경쟁 입찰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사가 아시다시피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 많은 장비라든가 인력을 바꾸는 데 상당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경쟁력을 유도해서 서비스의 향상, 그리고 비용 절감을 가져온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앞으로 지적해주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종로5,6가동 관내 인도, 보도블록이 깨지고 파인 곳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하수도, 도시가스, 케이블공사 등 여러 가지 공사로 말미암아서 곳곳이 파헤쳐진 곳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토목과에 기동순찰반도 있고 안전순찰점검반도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것은 동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소규모의 파인 곳이라든가 보도블록이 침하된 곳이라든가 도로가 손괴된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물량이 발생함으로써 제대로 손이 못 간 부분도 있고 또 하자보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제때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 또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재빨리 수리가 되도록, 보수가 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 좀 우스운 얘기지만 저희는 365일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보도블록을 고치면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다 하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생각나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칙적으로 어느 기간이 아니라 항상 이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사동지역에 외국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 계획은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참으로 좋은 지적입니다. 洪承台議長님이 질문을 못 하시니까 대리로 해주신 것 같은데 그분이 아니라 우리 구의원님들은 자기 동만의 구의원이나 아니라 우리 종로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의원이기 때문에 마땅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에서도 호텔급의 좋은 화

장실을 여러 곳에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사동에 이런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그런 부지 물색과 함께 서울시에 우리가 이를 건의해서 가능성도 보여지고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종로 관내에 있어서 공중화장실을 좀더 높은 수준의 화장실로 만들어서 깨끗한 종로의 이미지, 아름다운 종로의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업소 위주로 볼 때 화장실 개·보수를 해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3%의 저리자금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하여 외국인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명소에 걸맞는 화장실 건설에 만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安載弘議員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부족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할까 합니다. 종로구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문제를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로구를 전부 염려하는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흔적이 보이셔서 든든하고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형질변경 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한 평창동 삼복도로 상단지역에 대하여 서울시 보상 대책을 수립토록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고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공원지구로 해서 우리가 후손에게 남길 그런 훌륭한 곳은 국가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보상해주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특히 국가에서 판 이 토지에 대해서는 빨리 보상을 해서 아름다운 북한산 훼손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달라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 30일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된 구기동, 평창동 일대는 서울시에서 직접 입안 및 결정을 추진한 곳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등 노력했으나 최종적으로 공람한 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합리적인 그런 고도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우리 구에 유리한 대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풍치지구와 관련 2000년의 현황을 전면 재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곳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풍치지구 해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창동 여객자동차 정류장의 해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저축 여부와 서울시 협의 등을 통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면 재검토하여 불합리하게 지정된 곳은 해제를 적극 재검토하고 조기 개설이 필요하나 재정형편상 지연되는 곳을 서울시 예산지원을 적극 건의하여 시협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종로구가 우리 나라에서 제일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얻어올 때 이 점을 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매스컴에서 보셨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앞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법이 개정돼서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되는 일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재개발 및 상세계획 등 도시계획 추진 시 여론수렴 방법으로 향후에는 주민설명회 개최, 반사회 홍보, 현수막 부착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이행당사자에게 계획내용을 자세하게 알리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82년 이후 무허가건물의 실태 및 양성화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하셨는데 이 문제는 洪起瑞 運營委員長님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단 소규모 일정 면적 이하 건물 및 영세민에 한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고 불법 건축물 조치에 대한 구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현행 관련 법규정에 자진 시정, 강제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토록 되어 있으나 철거 후 재발생하는 사례도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와 구에서 지역 순찰을 하여 예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손이 부족해서 많은 이런 무허가건물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연면적 60㎡이하 주택 소유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주

민에 대해서는 부담능력이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해서 이행강제금을 경감하여 소정 금액 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양성화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양성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기동 139번지 사유지 개발에 관한 대책 및 이용부지의 이전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安載弘議員님께 이 점에 대해서 동민과 더불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구기동 139번지 일대는 서울시에서 외국인 전용주택 건립(안)을 만들었으나 우리 구에서 복지시설 건립 등으로 강력하게 반대해서 그 구체적 개발계획은 아직 미확정 상태입니다. 의회와 협조해서 이 부지에다 우리 구 종합복지시설을 짓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창고 이전대책은 앞으로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 행정 전반에 대한 주민 불신감 해소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20세를 불신시대라고도 일컫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심하게 말하는 이는 부패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수많은 부정부패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의 간부가 부정에 연류돼서 우리 20만 구민의 위상을 더럽혔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송구스러움과 함께 그동안 수십 년간 관행처럼 되어온 이 구조적인 부패가 하루아침에 일소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질문이 있으시지만 우리 공무원의 친절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역시 그동안 오랜 관습에서 헤어나지 못한 공무원이 태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독려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사기를 앙양해 주셔서 그 중에서 종로구청 공무원이 가장

친절하다는 것뿐이지 1,300여 공무원이 다 친절하거나 부정부패에 가담하지 않는다고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잘될지는 모르지만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두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 말씀이 구정발전을 위한 충고라고 생각하고 이 채택절에 힘입어서 이 부정 일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민원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외람되지만 3,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95% 이상이 만족하다고, 흡족하다고 답변해서 우리에게 많은 용기를 주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극소수의 직원 때문에 불신을 받는 사례도 있고 또 해마다 그리고 감사 때마다 의원님들에게 불손하다는 지적을 받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민원 부서에서는 친절합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적은 실과만 가더라도 그냥 쳐다보고 인사를 않는 경우도 있고 일어서서 안내를 하는 경우가 적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적을 해주신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부서의 간부가 교대로 그 실과에 나와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직접 안내를 해주고 자리를 권하고 의원님들에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일도 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이 점 늦었지만 넓은 아량으로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요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고 또 명예감사관제나 주민모니터제를 도입하고 주민과 합동단속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신감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도시가스 공급대상은 3,500가구인데 내년에도 약 3,500가구를 할 예정입니다. 금년 12월말로 우리 목표한 대로 달성된다면 보급률이 66%에 달할 것입니다. 대개 평지는 상당히 되어 있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달동네라든가 그런 지역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기피합니다. 제가 극동도시가스 사장과 직접 만나서 해결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상당히 사업성을 따

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어려운 지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도시가스 보급률이 70~80%대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연 6%대로 낮춤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을 낮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부 동에 편중되어 집행되고 있는 동소규모지역 편익사업비의 효율적, 경제적인 예산 집행계획을 질문하셨는데 이것도 朴鍾植議員님과 질문이 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소규모지역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지역별 안배에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비를 균등 분배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이것이 朴議員님 질문의 요지도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소규모지역 편익사업은 총무과에서 사업 수요조사를 하고 토목과에서 사업시행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에 사업예산을 배정하는 관계로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동장의 재량이 한정되어 있는 폐단이 있어왔습니다. 균등분배는 그렇지만 지역 특성에 의해서 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좀 부유한 동네와 좀 어려운 동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균등분배는 옳지만 전체의 균등분배는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연초에 동별 최소한 500만원 정도를 균등하게 우선 배정해서 동장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소규모 편익사업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수거의 효율성 제고 및 환경미화원 비리 방지를 위하여 종로구 전 지역을 대행구역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가 하고 질문하셨는데 이것도 또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어려움이 수많은 민원도 있지만 자기의 이익에 관한 청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용역이 상당히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여겨졌는지 모르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에게 많은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담당하고 얘기도 해서 이 것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이 청소용역에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아웃소싱을 하면 이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이런 쓰레기 처리방식이 되고 미화작업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청소미화원들이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들을 그야말로 퇴출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민간에게 용역을 주더라도 그 직원들을 관악구 같은 데는 그 직원들 그대로를 전부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희 계획은 연말이 되면 많은 수가 감소됩니다. 자연 감소나 정년퇴직으로 말미암아서. 저희 환경미화원 정원은 247명으로 책정해서 '98년 371명이었던 숫자가 현재는 28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5명이 감소되었고 2000년 상반기까지는 새로 책정된 247명의 정원을 맞출까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미화원 수가 줄어들면 민간에게 용역을 떠맡기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 것입니다. 미화원이 팁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우리 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그런 점에 대해서는 길들여져 있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금강산을 가더라도 그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자꾸 돈도 주고 그러지만 외국의 팁보다도 우리의 팁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술집에 가거나 음식점에 가더라도 우리나라 팁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다고 합니다. 그런 관습의 요인도 있지만 이 미화원들이 오히려 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가 이렇게 팁을 주고받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비해서 좀더 많은 미화원에게 보수를 주게 하고 이런 부정한 방법이 없도록 그렇게 제정되었으면 하는 것이 희망이고 저희도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로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자체 고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역 이미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소위 CI를 말씀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종로구만의 독특한 특성을 살린 CI사업은 경쟁력 확보와 구민의 양심 조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되고

이 또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나라나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캐릭터를 개발하고 또 이런 CI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CI사업의 일환으로 '92년 12월에 종로구 시각화표준 규정을 제정해서 종로구 휘장 소위 심벌마크와 로고 타입 전용색상을 일원화해서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저에게 로고에 대해서 말을 하시곤 합니다. 좀더 세련되고 예술성있는 것을 만들 수 없느냐 하시는데 저는 취임해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시다만 고유한 심벌마크에 대해서 구청장이 새로 와서 자기 의지대로 바꿔버렸다 이런 비판과 함께 또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과 예산이 들기 때문에 보류해 왔었습니다만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의원님들의 하교와 더불어서 새로운 이미지 창출 및 응용 분야에 대한 시야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원들의 비리 방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따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질문해주신 구정의 신뢰 확보 방안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질책해주신 대로 대다수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극소수가 그런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간혹 적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량한 직원들이 극소수의 직원들 때문에 매도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새로 들어서거나 시장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무사안일이거나 탁상행정이라든가 또 부패의 온상인 공무원에 대해서 칼날이 무섭게 번득입니다. 저는 공무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전인수격이라고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겪은 대다수 공무원들은 선량합니다. 그리고 이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자기 일에 열중하고 노력하는 공무원들을 볼 때 존경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극소수의 악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동안에 아시는 바와 같이 종로구 안에서도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이고 부패의 온상인 듯한 그런 직원 몇을 숙아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信賞必罰이거나 一罰百戒를 적당히 혼용해서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議員님이 고견 주신대로 인허가나 공사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예방감찰과 감사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직원들이 비리 유혹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사기진작에 신경을 써주시는 만큼 저도 같이 힘을 합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영동 산1-1 의 6필지는 불법적 형질변경 허가 후 수개월 간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되고 있는바 조속히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재해 발생지역인데 자치구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번지 외 6필지는 '97년 6월 13일 적법하게 형질변경 허가된 후 절개지 안전검토 및 건축계획 재검토에 따른 이유 등으로 '98년 11월에서 '99년 3월까지 공사를 중단했다가 '99년 4월 8일부터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공사 소음 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과 수 허가자의 자금사정으로 7월 20일 이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현장을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해서 중점 관리 중이며 토목분야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두 번이나 실시하는 등 수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 허가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공사 재개를 지시하였으나 공사장 방치가 지속되고 있어 '99년 12월말까지 공사 재개 및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시 허가 취소 할 예정임을 수 허가자에게 통보한바 수 허가자의 조치 여부에 따라 적정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모 일간지에 커다랗게 쫄러로 나와 가지고 평창동 일대의 산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남벌되어 있고 개발되어 있다 이렇게 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아시지만 퇴직자가 자기 집 옆에 건축공사를 하는데 자기들

의견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 보도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불법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구청장이 상위에 나겠습니까? 담당자가 상위에 나겠습니까? 이런 언론의 행패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번지의 공사는 적법하게 허가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종로구 부암동 202번지는 석과정이 위치한 지역으로 향토문화재가 있는 지역인데도 형질변경 면적이 최초 허가 면적보다 2배이상 증가된 면적이 허가될 수 있었던 사유는 적법한 사항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2필지인데 '97년 4월 15일 형질변경 허가된 후 인접대지 부암동 201-3을 추가하고 개발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 작년 '98년 4월 3일 변경허가 되었습니다. 최초 허가 면적은 3,293㎡이고 면적 변경시 3,518㎡로 증가되었으나 이는 단순히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추가한 것입니다. 허가면적 중 개발부분이 당초 1,127㎡에서 2,566㎡로 증가되면서 원형보존 면적이 축소되었으나 이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참고하여 종합검토했던 것이고 문화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성 있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환경계획을 허용하되 주변과 조화되도록 건축물을 계획하고 간선도로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토록 하는 조건으로 변경 허가된 것으로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제정할 용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는 공개행정을 대찬성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98년 1월 1일부터 동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대상 및 절차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하여 정보공개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1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수수료의 경우에도 우리 구는 현재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건축물 조치에 대한 구의 대책은,

그리고 무허가건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현황, 의원 자료도 비공개 대상이 되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은 洪起瑞議員님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洪起瑞 운영위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불법건축물 조치, 무허가건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현황 또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이 되는지 의원 자료도. 또 명륜3가 1번지 997호 소유자 고병진 무허가 이행강제금 부과관계 그리고 네번째로 명륜3가 1번지 996번지 개인 사유지상의 1평미만의 적치물 철거관계 그리고 5번째로 25.3㎡ 거실 사용 무허가 건물 사례는 등등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洪起瑞 운영위원장님 무허가 건축물관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로 '92년도 이전에 발생한 건물에 대해 부과한 건축과태료는 금년도까지 1,610건이며 '92년도 이후 발생한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715건이며 철거건수는 총 794건입니다.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 조치할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6항에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부분을 생략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번째로 명륜3가 1-997번지 무허가건물은 '93년도 제1차 항측에 적출된 10㎡ 무허가건물로서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38만 5,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동건물은 연면적 58.12㎡ 85㎡ 미만으로 경감기준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80%를 감면 부과한 바 있으며 동건물의 발생시기는 항측 재판독에 의거 '92년에 발생이 확인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명륜3가 1번지 996 지상에 발생한 1평 미만의 불법적치물은 사유지가 아닌 현행 도로 부지로서 폭 2, 3m 통행로 계단에 설치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의해서 철거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번째로 행촌동 210번지 479호 무허가건물

은 '99년 3월 18일자 적출되어 건물주가 '99년 3월 23일 자진 철거했던 것이나 재발생된 사례이며 위법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 조치 하겠으며 추후 철거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에 철거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륜동 성대입구에서 소나무거리까지 직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화동에서 원남동로터리까지 교통혼잡한 것을 적시 해주시고 여러 가지 그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균관길 도로는 왕복 2차선 좁은 도로로서 성균관대학교에서 창경궁로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정체되어 있는 지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균관대학교에서 소나무거리 방향의 차량이 지금은 원남동로터리에서 유턴해서 이용함으로써 불편한 사항이나 신호등 설치 등은 관할 경찰서에서 결정할 사항을 동대문경찰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제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에서 경찰 지방화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의원님과 더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가로수 고독성 농약 살포를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 못지 않은 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특수한 약품명을 말씀해 주셔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에 피해를 입히는 해충은 미국 흰불나방과 오리나무 입벌레 그리고 버드나무 방패벌레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 해충의 방제용으로 살포하는 약제는 산림청에서 연구, 검증된 농약을 서울시에서 구입해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약 이름이 주론수화제, 크로르프로와즈론, 디스수화제 등으로 해충의 성장단계 즉 알이나 유충의 상태에서 알의 피막이 형성되거나 유충의 몸에 약성분을 잔존시켜 죽이는 특성을 가진 저독성 농약을 가로수 등에 해충 구제약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독성인 스프라사이드는 가로수 해충구제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용 저독성 농약은 총 500kg로 되어

있는데요 주론수화제가 90kg, 크로르프로와즈론이 90kg 그리고 리프스화제가 320kg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TV에서 알부민 문제에 대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알부민 주사를 많이 맞아왔습니다. 해롭다는 얘기 한마디 없었는데 수년간 우리 국민이 사용한 뒤에 이런 해롭다는 말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해서 저독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이 고독성이다 인체에 해롭다 할지도 모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관련부서에서 더 연구도 하고 또 서울시나 산림청에 더 촉구를 해서 좀더 인체 해롭지 않는 약재를 쓰도록 이렇게 노력할까 합니다.

다음으로 와룡시장 재건축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명륜동 3가 1번지인데요 미등록 재래시장 재건축은 중소기업의 유통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구청장의 추천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시장 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또는 시장 재건축사업시행구역을 지정한 후 시장재개발조합 및 시장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득해서 구청장으로부터 얻어 가지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시장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재건축하고자 할 경우 구청의 사업시행구역 선정 추천 의뢰를 해주시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용차량 보험가입시 안정한 보험사가 가입하고 일반인이 주민이 이용하는 버스 등 행정차량에 자손보험을 추가로 가입 교통사고에 따른 보상에 대비를 왜 않느냐 이렇게 좋은 질책을 주셨습니다. 관용차량의 운전원의 경우 사고시 연금법에 의거 공무원 공무원상 요양비 등 자손보험과 유사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서 자손보험 즉 자기신체, 자기 차량, 무보험상해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나 다수가 승차하는 우리의 버스 2대 그리고 가로청소차량 등 고가의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자

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동행정 차량 19대를 포함해서 주민이 이용하거나 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가 동승하는 차량에 대해서 추가로 자손보험에 가입해서 차량사고에 따른 보상업무에 만전을 기할까 합니다. 조사해봤더니 전부 55만원 정도기 때문에 즉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공부와 종합토지세 과세면적 차이 사유 및 비과세 면적에 대한 세원 보존 확보방안과 세외수입 변상금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적공부상 총 면적은 23,913㎡, 종합토지세 부과대상은 787,300㎡이고 비과세 대상은 1,604만㎡입니다. 비과세 대상 중 국가기관, 사적지, 공원 등 1,594만1,000㎡는 전산 입력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하천, 구거, 제방부지 등 99,000㎡는 전산 입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천, 구거, 제방 등 비과세 토지에 대한 전산입력 작업을 조속히 실시해서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세원보존 확보방안은 중앙정부 국회 등에 구 재정의 취약성을 설명하고 교부금 확대 및 이 액수로 보면 192억 상당입니다. 종토세가 189억원이고 재산세가 3억원 정도 됩니다. 사적지 관리방안 개선 등을 수차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이는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요하는 사항으로 구의회와 협조하여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 징수는 점유자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대부계약 후 사용토록 유도하고 변상금 부과 전 실태조사 및 현황측량 시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내역을 사전 설명하여 징수를 제고에 만전을 기할까 합니다.

다음으로 丁炳煥議員님께서 또 자세한 질문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 구정을 위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종로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종로구가 주관해서 TV 인기프로에 전국노래자랑이나 열린음악회를 유치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음악회를 하거나 가요대회를 한다면 아주 부정적인 분이 계십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이 복지종로를 위해서는 신나고 신명나고 즐겁고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구에 불행하게도 그러한 커다란 그런 공지나 그러한 실내체육관같은 것이 별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전국노래자랑이나 열린음악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했으나 특히 2월 10일자로 예정된 우리 구민회관에 대해서 그것을 유치하려고 했으나 벌써 1년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게으름을 핀 결과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꼭 열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종로 전국국악대회도 전국적인 국악대회도 열고 있습니다마는 성동에서 왕십리 가요제 해서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는 수많은 예술인이 모여 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도 하고 의회에서 또 허락을 해주셔서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할까 합니다.

다음으로 정부 대여양곡 미회수분 결손처분 불가능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친절하시게도 그 변상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재할 능력을 키워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서 그 분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또 변상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미상환분은 1,243가마입니다. 매년초 상환계획을 조사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계속적인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본인은 물론 보증인에게도 상환 독촉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상환분은 대부분 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환에 어려운 부분이 많고 이에 따라서 지난해 '97년 2월 27일 결손처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었는데 양곡 특별회계 과다손실 이유로 같은 해 3월 17일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저히 상환

이 불가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건의하고 한편으로는 상환을 촉구해서 많은 상환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급이하 직원 중 현직급에서 10년이상 근무자 중 승진누락 현황 및 해소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야 할 일인데 우리 간부들이 챙겨야 할 일인데 의원님께서 이 수레의 양바퀴라고 할 수 있는 집행부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사기를 진작시켜 주셔서 자긍심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우리 구 6급 이하 직원 중 10년 이상 승진하지 못한 직원은 총 13명입니다. 직급별로는 6급이 7명 행정직 6명, 기술직 1명 그리고 7급이 6명입니다. 행정직 5명, 기술직 2명입니다. 아, 1명입니다. 그래서 총 13명인데 이 구청장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도 있습니다. 약간 설명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종로구청장으로 취임해서 앙케이트를 내봤더니 종로구청에 일하고 싶다는 공무원이 60% 미만이었습니다. 40%가 종로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욕이 있어야 구민에 대해서 질 높은 서비스와 행정을 잘 집행할 수 있을 텐데 여기를 떠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것에 크게 배치된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에게 많은 그런 환경개선이나 또는 사기진작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매사에 장단점이 있다고 하듯이 이 결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종로구청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심각합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명예퇴직이 많아 가지고 진급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이 하급직 직원들은 종로구청이 진급이 잘 안 된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각하구나 하는데 제가 또 아는 국회의원이거나 또는 당료들이 전화를 합니다. 다른 부탁이 아니라 종로구청에

좀 일 할 수 있게끔 그리로 데려가 달라는 부탁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시다시피 정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1명이라도 내보내야 할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1:1 교환이 아니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데 지금 지적해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은 승진시험제도로 승진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시험이 있어야 합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은 지금까지 6급이 계장 현재는 팀장으로 불리죠. 보직이 있어서 결원이 없으면 승진이 안됩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좀 희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연말에 승진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5급에서 4급 승진이 3명이 됩니다. 그리고 6급에서 5급이 6명, 7급에서 6급이 22명, 8급에서 7급이 33명 또 기능 1등급이 88명인데 그래서 152명인데 순수 승진이요. 이러한 것으로 이루어진 상황인사가 450명이 이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고 축제가 될 것인데 제가 취임해서 제가 최고 기록이 132명을 승진시킨 경험이 있는데 외부로부터 수많은 압력이 있었습니다. 계장 하나 받아달라 뭐 6급, 7급, 8급 받아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빈자리 하나만 뒀으면 5명, 6명이 진급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버텼습니다. 우리 구에서 고생한 사람 승진해줘야 한다 해가지고 버텨 가지고 132명이 승진하게 온통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깨뜨리고 152명이 승진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는 몇십배로 이렇게 좋은 소식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무악동 46번지 1910호의 약수터 개발 중단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소재한 지하수는 '94년도에 개발해서 음용수로 사용해왔습니다. '96년 6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3회 연속 수질 검사 결과 질산성 질소 등의 과다 함유로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돼서 주민들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어 '96년 12월 5일 폐쇄조치하고 안내판을 게첩

하고 현재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약수터를 이용했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수터를 개발하고자 '99년 11월 19일 전문기관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된 수질검사가 이용주민의 음용수로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정비하고 서울특별시에 2000년 예산 반영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진동 새마을금고 2층에 경로당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종로구라는 슬로건 아래 무악동을 시작해서 인구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되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종로를 비롯해서 도심공동화는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중구는 일찌감치 국내 굴지의 그런 건설회사가 참여해서 많은 건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 또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서울호텔 11층에서 내다본 청진동의 지붕모양 같이 우리 관철동, 관수동을 비롯해서 도심이 그런 형편에 처해있습니다. 지주는 강남에 살고 세입자들이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개량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한옥 보수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존경하옵는 李炯述議員님이 계시는 북촌마을만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더불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서 아름답게 보수하거나 또 주민들에게 많은 예산을 쥐서 보존할 가치를 갖게끔 해달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듯이 우리 도심이 이 도심재개발을 통해서 주상복합건물로 해가지고 우리 종로가 세수도 늘리고 또 깨끗한 아름다운 종로를 만드는 일석이조의 그 일을 우리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安載弘議員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지역이 이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5층이하라든가 도심에 20층 이하로 해야 한다는 그러한 불리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가지 거기에 다른 면이 있는 것은 용적률을 원 기준보다 훨씬 늘려줘서 도심재개발을 촉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서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는 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해서 여기에 맞는 그런 개발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청진동 경로당도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의견을 들어봤더니 거기에 종로에서 사는 영감 되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계시느냐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도심의 경로당을 보면 종로에 사시다가 외지로 가신 분들이 직장이 여기에 있거나 또 친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계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 경로당 몇군데를 폐쇄했는데 도심에 있는 거기에서 마작을 하거나 노름을 하는 장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저희가 폐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도 우리 인구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우리 상당량의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하나 만드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도 많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모두 잘 아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뒤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崔康洵議員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지의 실효성 문제라든가 그 생산성 문제를 잘 검토해서 그렇게 개설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진동 도심재개발구역 내 지주 285명 중 75%인 195명이 자율적으로 수복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누더기 옷을 입고 비가 오면 비가 새는 노후 가옥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보수 및 개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의향은 없는지 루핑지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진동 도심재개발을 수립하고 수차례의 주민설명회와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97년도에 지하권 통합개발을 수립한 19개지구를 사업계획 결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용역설계를 마친 상태이나 IMF 체제하의 경제적 어려움과 대형건설업체의 참여가 부진하고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는 사항입니다. IMF가 우리나라에 무수한 문제를 일으켰는데 우리 구에서는 기

존에 수립된 계획을 기본으로 하면서 도시재개발 법 및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옥 개·보수 현황은 서울시 건축조례에 준하는 건폐율 60%이하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검토해 처리하되 철거 후 다시 건축하는 개축허가는 2층 이하까지 가능하며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관할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신고로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가옥주와 세입자의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세입자는 막대한 권리금을 주고 거기서 수년간을 장사를 못 하게 되는 입장이 됩니다. 또한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개발이 돼서 세입자가 다시 그 곳에 장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 또한 가옥주도 과연 이것이 성공리에 마쳐져서 커다란 이익이 올 것인가? 수년간 세를 받아서 먹고 사는데 이것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우려 속에 더군다나 IMF까지 발생해서 우리나라 우수한 기업체가 여기에 다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것이 시행될 것처럼 됐는데 우리나라가 국란의 위기에 처해서 이 큰 기업체들이 손을 떼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이 설명회를 의원님들이 이미 들으셨겠지만 만약 청진 지하개발이 우리 뜻대로 된다면 아마 세계적인 명소가 된다는 것은 明若觀火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점에 대해서 서울시 전문가들이 건설부에서도 이런 훌륭한 계획에 대해서 격찬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도 동방프라자 부근에 커다란 대단위 건물을 지으면서도 지하개발을 생각치 못 해서 다시 공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아이디어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통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더구나 건설회사가 한발 물러섬에 따라서 이 계획이 일부 지방신문에서 이 점에 대해서 예상을 낭비했다, 설계용역비를 날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일입니다. 이것 외에도 수천 억을 날린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일부분에서, 몇몇 지역에서는 자

기들 스스로가 지금 개발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대로 개발된다면, IMF가 회복되고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면, 우리 계획대로 다시 된다면 우리 종로구청의 건설과 더불어서 이 청진구역이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崔康洵議員님이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왕산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데 소위 자연친화적인 거리로 조성할 용의와 함께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범지대화 되는 문제, 간판을 덮는 불쌍사나운 가로수 문제를 말씀하시고 또 의미있는 그런 유실수를 심으면 어떤가 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셨습니다. 가로변 유실수를 가로수로 식재할 경우 공해와 병충해에 참으로 약합니다. 도심지구에서 생육상태가 불량할 뿐만 아니라 주 2~3회 농약 살포 등 집중관리를 해야 하는 수종으로 여건상 가로수 형태의 유실수 식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로터리나 자투리땅에 유실수를 심어보라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감나무가 있습니다만 종각 앞에도 감나무를 심고 종로4가에도 감나무를 심고 유실수를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실수에 확신이 서는 대로 홍성처럼 심어놓으면 참으로 아름다운 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공감합니다. 현재 식재된 가로수는 도심 내 분진 및 매연 등 공기를 정화하고 회색 콘크리트 건물의 삭막함을 완화시키는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산로의 유색 아스콘 보도 설치 문제는 배수와 관계가 있고 지중매설물 관계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서 조치할 것이고 지적하신 가로수 문제나 유실물 문제는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는 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신동 상업지역의 도시가스 미공급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창신동 상업지대 일대는 도시가스 중압배관이 일부 설치되어 있으나 이 중압배관에서 업소나 가정으로 바로 연결하여 가스를 공급할 수 없기에 지역 정압기 설치가 선

행돼야 합니다. 현재 이 지역은 상가주택의 밀집 지역이고 또한 주민들이 혐오하는 시설로 정압기 설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가스공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압기 설치 부지 확보를 위해서 공급회사와 적극 협조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서 지역 정압기 설치 장소를 지정해 주시면 즉시 도시가스를 공급토록 해줄 것입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일례로 여성전도회관 그 앞의 공원을 우리가 지금 변경하고 있는데 그게 그 정압기 시설 때문입니다. 그 일대에 정압기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공지이다 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서 지금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宣相善議員께서도 승인동 정압기 문제로 굉장히 곤욕을 치르셨는데 정압기 시설을 할 수 있는 곳만 있으면 특별한 이유없이 도시가스 공급은 쉽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많은 도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창신동 그라스타워 건너편 보람약국 간에 육교가 필요한데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하셨습니다. 최근에는 교통정책 기준이 차량위주에서 보행자 보행권을 확보해주는 정책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화문 이 넓은 길에 지하도가 있습니다만 지금 보행자 건널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이 설치된 육교를 철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을 잘 조사해봐야겠지만 우선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보행자 우선권을 주고 편리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신동 195~10번지에서 13번지에 경로당을 신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신규로 건립하려면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예산 형편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부지를 실사해서 경로당 설치 가능 여부, 생산성 효율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창신1동 13통 지역에 놀이공원을 조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주셨습니다. 창신1동은

우리 종로구에서도 아마 가장 열악한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지역에 몇 년 전에 어린이집을 개설할 때의 그 동민들 기쁨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놀이공원은 참으로 필요한 시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부지 확보가 참으로 어려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부지 확보를 해주신다면 적극 검토할 것이고 또 거기에는 동대문 상세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재개발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블록 세부계획에 의원님 의견을 넣어서 현대화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볼까 하는 계획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宣相善議員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고맙게도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서두에 저를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宣相善議員께서도 많은 용기를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묘공원에서 승인초등학교 간에 노점상들이 온통 길을 메우고 있어서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현실감을 체감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도 충신시장과 마찬가지로 화물차 문제와 같이 제가 계속적으로 교통지도과에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개선되도록 지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여전히 크게 변화된 것은 없고 차가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차도 세워놓고 양쪽으로 그 노점상들이 완전히 길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어린 새싹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문까지 완전히 봉쇄되다시피 해서 노점상들이 점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부끄럽게 생각하고 동사무소나 우리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이걸 단속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실 것은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안 중의 하나인 노점상 문제와 같이 우리가 오후에 퇴근을 하면 그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밤이 되면 이 지역의 노점상들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단속원이 거기에

상주해 있어야만 되다시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력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아침 9시부터 저녁 4시까지 학교 앞 부근에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단속원을 고정 배치해 가지고 구간별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노점상 단속을 더 강화해서 시민 통행과 초등학교 학생들 등·하교시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굴착 후 복구가 미진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전화,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총 4,012건에 연장 57km의 도로굴착 신청이 허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굴착 신청이 폭주하고 동시다발 주야로 이뤄지는 도로굴착에 담당직원 2명으로 모든 굴착공사 감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굴착복구 감독보조원 2명이 주야근무로 조사를 실시, 복구공사에 철지를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유관 부서별로는 복구공사 및 지연복구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인동 179-45~509번지간 주거환경개선 지구 도로개설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대부분 일부 주민이 반대해서 안 되는 일들이 태반입니다. 100세대가 찬성하는데 한 5세대가 반대를 하면 수용까지 가려면 상당히 법적 절차가 있고, 이 보상절차가 있어서 질질 끄는 것이 이 건축행정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 점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일부 공무원의 나태함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인동 179번지 일대 추진 중인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4월 21일 공사착공이 되어서 지장물 철거는 95% 되어 있습니다. 공사 시작 지점이 당초 예상치 않았던 불포함 발생함으로써 도로폭 6m가 확보되지 않아서 공사장비 및 자재의 반입과 안전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승인동 181-95 대지를 추가 수용코자

협의한바 있으나 보상협의를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 추진이 지연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공사가 정상화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삼일아파트 7~12동까지 1,455평은 도심속의 흉물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역시 그동안 주민들도 노력하고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노력해 오셨습니다. 어쩌면 합의가 상당히 되어 있을 때 시에서 반대해서 못 해가지고 또 계획을 변경한 바도 있고 또 주민들 일부가 반대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앞부분만 하자는 측이 있고 또 전체를 해야 한다는 서울시 의견이 있고 또 뒤의 주민들은 반대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너편 중구도 그렇게 흉물인데 이것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좀더 깨끗하게 정리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현재 지역 주민은 재건축 또는 자체 철거 등의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방법을 취하든 아시다시피 주민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구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朴鍾植議員님께서 역시 많은 격려와 함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명예감독관제도가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도 시정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명예감독관제도도 호지부지하고 또 부서에서 잘 협조가 되지 않는 것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제도는 80년대 말부터 서울시 전체에서 시험되어 그동안 각종 건설공사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부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명무실한 또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명예감독관이 시정 요구한 사항이 처리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

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2000년도에 시행되는 건설사업에는 명예감독관제도를 더욱 강화해서 내실있는 공사가 되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사업비를 구청에서 총괄하는 것, 또 동별로 균등배분 하는 것은 아까 답변했습니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더 지적해주신 것은 나아가서 주인의식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지적이시고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우리 구청 직원들에게 내가 구청장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청장이면 과연 주민들에게 그렇게 대할 것인가? 일 처리를 그렇게 할 것인가? 그런 반성을 저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주인의식을 가진다면 정말 바람직한 행정이 될 것이라고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이것 역시 우리 공무원들에게 많은 공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51건의 질문을 의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제게 질문한 내용이 무성의하거나 또 질문한 요지와 방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어젯밤이나 새벽이나 오늘 점심시간에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洪承台 鄭興鎮 鐘路區廳長님! 수고하셨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鄭興鎮 區廳長님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그리고 傍聽客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99년도 정기회 오늘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년도 오늘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지 못하신 나머지 의원들께서는 내일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議會 定期會 第2次 本會議 散會를 선포합니다.

(15時41分 散會)

○出席議員 19人

- | | | | |
|-----|-----|-----|-----|
| 鄭泰淳 | 李憲九 | 吳錦南 | 千相旭 |
| 玄壽漢 | 安載弘 | 丁炳煥 | 劉燦鍾 |
| 李炯述 | 洪承台 | 金福同 | 朴鍾植 |
| 吳弼根 | 洪起瑞 | 崔康洵 | 金以煥 |
| 李東奎 | 金正大 | 宣相善 | |

○出席關係公務員

- | | |
|---------|-----|
| 區 廳 長 | 鄭興鎮 |
| 副區廳長 | 金光鎮 |
| 行政管理局長 | 吳炳漢 |
| 財 務 局 長 | 金賢植 |
| 生活福祉局長 | 董連浩 |
| 建設交通局長 | 吳鍾錫 |
| 保 健 所 長 | 李星世 |

